

원불교 법락의 형성과 그 변천에 관한 고찰

김혜순

원광대학교 대학원 예다학전공 박사과정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Beob-Lak of Won-Buddhism

Hye-Sun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ourtesy & Teism, Wonkwang University

(투고일: 2008. 8. 19, 심사(수정)일: 2008. 9. 11, 게재확정일: 2008. 9. 12)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the religious meaning and symbolism of *Beob-Lak*, which is attached to the preacher's clothing as a full dress of *Won-Buddhism*, which, as a new religion, was originated in Korea's historical foundation in 1916. In addition, it trie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study on Korean religious costume by examining *Beob-Lak* in the context of social atmosphere of Korea, which has accepted various religions.

As a result, I found that *Beob-Lak* was originated from the different colored lines of the early Japanese Buddhist religious costume and it employed *rochza* as an independent component, but that the present protocol of *Beob-Lak* was completed by the first *Jongbeobsa Jeongsan Jongsan* in the late 1950s and all the religious workers have put it on with the religious costume in great worships since the early 1980s.

Beob-Lak of *Won-Buddhism*, which employs *Ilwonsang Beobsinbul* as the symbol of its religious doctrine, symbolizes the succession of Beob and represents the will to repay the teacher's favors to hand down the great truth. At the center, *Ilwonsan(one round shape)* is the symbol of the innate place for everything in the universe, and its yellow color symbolizes the highest nobleness.

I expect to see following researches which deal with the costume of *Won-Buddhism* from various views on the basis of this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Beob-Lak*, which is the symbol of formal full dress of *Won-Buddhism* as Korea-style new religion created over 90 years ago.

Key words: *Won-Buddhism*(원불교), *Beob-Lak*(법락), the costume style of *Won-Buddhism*(원불교 복식), the full dress style(의례복식), *Jongbeobsa*(종법사)

I. 서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종교 교단에서는 표현수단의 하나로 특별한 의복을 착용하여 위엄과 질서를 유지시키고 그 의식이 갖는 의미의 효과를 높여 의례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의례복식은 물질이 주는 정신적(精神的) 구현물로 분명한 정신적 기호 역할을 하며, 기호의 참된 의미는 바로 시공간을 말해 줄 수 있고, 위엄과 질서를 창조하는 기능을 가진다.¹⁾

근세 한국에서 창립된 신흥종교 역시 의복으로써 그들의 종교의식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명칭이나 형태를 통하여 사상까지도 표현하고 있다.²⁾ 즉, 각 교단에서 착용하고 있는 종교 복식³⁾은 성직을 수행하는 성직자 또는 교역자들이 의례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종교가 지니는 독특한 사상적인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역사적 토양에서 1916년에 자생한 신흥종교인 원불교의 의례복식인 예복으로서의 교복(敎服)에 부가되는 법략(法洛)의 형성 과정과 종교적인 뜻과 상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서 한국 자생의 종교가 표방하는 교복에 부가되는 상징적인 종교복식인 법략의 형성과 그 변천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종교 복식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원불교에 관한 문헌자료와 사진자료 그리고 증언을 토대로 고찰하였으며, 창교자인 소태산 대종사와 그의 법통을 이은 정산 종법사의 유물을 실측하여 그 형태 및 재료·구성을 살피는 실증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II. 원불교사(圓佛敎史)

1. 원불교의 창시

수운·종산·소태산의 대각(大覺)에 연원을 두고 생겨난 한국의 신흥종교들의 명칭들은 창교 당시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수운 최제우를 교조로 하는 천도교는 1860년에는 수운에 의해 '무극대도'라는 명칭으

로 알려졌었다. 이후 무극대도는 천도(天道)이며 그 학은 서학이 아닌 '동학(東學)'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로써 동학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이후 1905년 제3대 교조 손병희가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⁴⁾

현재의 '원불교'라는 교명 역시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창교 당시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1947(원기 32)년 1월16일 그동안 사용해 오던 「불법 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을 「원불교(圓佛敎)」로 개명하여 「재단법인 원불교」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고부터이다. 이후 새로운 교헌을 준비하여 1948(원기33)년 총회에서 정식으로 통과, 1949(원기34)년 4월27일 교명선포식을 갖고 내외에 공시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한 교단의 교사(敎史)는 그 내용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서술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지 또는 교조와 계승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상적 기술에 초점을 둘 것이나 사건적 내용에 초점을 둘 것인가로 나뉘기 때문이다. 원불교 복식은 해당 종교가 가지는 상징성을 내포한 복식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나 교단의 성장과 함께 발전, 변화되어 온 만큼 본 장에서는 교사의 중심을 대종사 이하 그 대통을 이은 종법사들 재세시의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원불교의 역사

1916년 4월28일 20여년의 구도생활을 끝으로 대각을 이룬 원불교의 교조 되는 소태산 대종사는 우주와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는데, 그 질서를 “만유(萬有)가 한 체성(體性)이며 만법(萬法)이 한 근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불생불멸(不生不滅)과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진리를 천명하였다.⁵⁾ 그 후 그는 유(儒)·불(佛)·선(仙) 3교의 경전을 비롯하여 그리스도교의 성서 등을 두루 섭렵하였는데, 특히 《금강경(金剛經)》이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일치함을 깨닫고 근본 진리를 밝히는 데는 불법(佛法)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여 석가를 선각자로 존송하는 동시에 불교와의 인연을 스스로 정하였다. 원불교에서는 이 해를 원기(圓紀) 1년으로 삼고 있다.



〈사진 1〉 1936년총부 인재양성단에서 운영하는 누에치기, 사진첩 소태산대중사, p. 95.



〈사진 2〉 1927년 간행된 <불법연구회규약> · 최초의 교서 <수양연구요론>, 사진첩 소태산대중사, p. 80.

그는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를 주장하면서 신앙의 대상을 불상(佛像)이 아닌 법신불(法身佛)의 일원상(一圓相)으로 삼고, 시주(施主)·동냥 등을 폐지하는 대신에 각자가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며 교화사업을 시행한다는 이른바 '생활불교'를 표방하였다. 그리하여 1917년 저축조합의 조직을 필두로, 1918년에는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인 방언(放匾)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2만 6,000평의 논을 조성하고, 그 후 옛 공장·과수원·농축장·양잠·한약방 등 생산적인 경영을 하여 새 교단 창립의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방언공사를 마치고 1919년 '저축조합'으로 시작한 교단은 그 명칭을 '불법연구회 기성 조합'으로 바꾸며 종교적 성격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는 장차 교문(教門)을 열어 정법교회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1920년인 원기5년에는 교리의 강령인 교강을 발표하였다. 그 후 그는 교화의 본거지를 당시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흥리(현 원광대학교 자리)에 마련했다. 1924년 대종사가 만 34세 되던 해 6월1일 마침내 서중안(徐中安) 등이 발기인이 되어 불법연구회를 창설하고 박중빈을 총재로 추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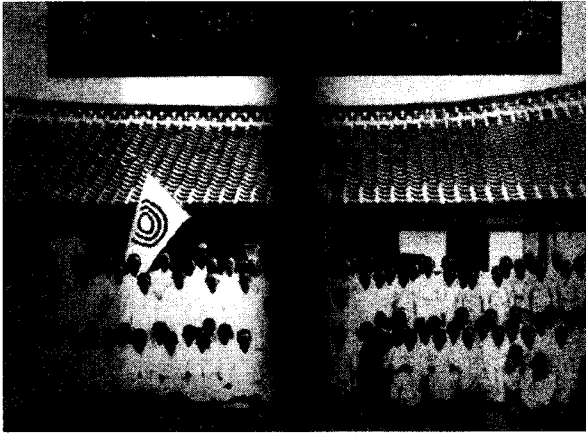
1924년 교화의 본거지가 마련된 '불법연구회'는 현 원광대학교 자리에 지속적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소태산은 1926년 2월 「신정의례」라는 것을 발표하게 된다. 이는 대종사가 개혁, 제시한 새 예법으로써 출생의 예, 성년의 예, 혼인의 예, 상장의 예,

제사의 예를 말한다. 예법의 개혁은 새 종교를 열 때 필수적인 선결과업으로 이를 통하여 의식혁신과 생활혁신이 되어 새로운 생활의 전개를 도모하게 된다.

1927년에 최초의 교서인 <수양연구요론>(사진 2)이 출간된 이래 그 교세가 꾸준히 성장하였다. <사진 3>은 1928년 불법연구회 창립 제1회를 기념하여 신축강당을 배경으로 모든 참석 회원들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기 불법연구회의 회기(會旗)는 현재의 원불교 교기인 일원상과 같은 원형이 3개 중첩된 것으로 이때부터 일원상은 공식적 표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듯하다.

1935년 4월 28일 대종사의 대각 20돌을 맞아 대각전을 준공하고 <사진 4>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정면 불단에 심불일원상이 정식으로 봉안되었다. 이는 불법연구회가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여 종교의 체계를 완전히 갖춘 중대한 사실이었으며 이에 이르러 비로써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을 확정 시행하였다.⁶⁾ 또한 이때를 기해 1926년에 발표된 「신정의례」이후 원불교의 첫 「예전(禮典)」이 간행된다. 「예전」의 간행에 앞서 1934년 총독부의 「의례준칙」 발표가 있었고 이듬해인 1935년에 전북도의 「의례편람」 발표가 있었기에 「예전」에서는 이를 일정 부분 참고삼음이 있었다.⁷⁾

1938년에는 <불교정전(佛敎正典)>을 간행하여 기본원리인 일원상의 진리를 포명(布明)하였으나, 일



〈사진 3〉 1928년 불법연구회 창립 제1회 기념, 사진첩 소태산대종사, p. 91.



〈사진 4〉 1935년 대각전 준공과 일원상 봉안, 사진첩소태산대종사, p. 123.

본 관현의 탄압이 계속되어 겨우 교단을 유지해나갔다. 그러나 다른 민족 종교 단체들에 비해 불법(佛法)을 표방한 불법연구회는 비교적 박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법연구회의 다른 단체와는 달리 의세를 포섭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종교적 포용성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분히 친일적이었던 해석도 가능하다. 〈사진 5〉에서 보이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불교의 초기 정전은 김태흡 스님의 주선으로 일본의 박문사라는 사찰의 주지 우에노의 도움을 받아 집필된 바, 일본 불교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대종사 사후 정산 증사에 의해 기존의 《불교정전》과 《대종경》이 합본되어 《원불교 정전》이 나올 당시 초기의 《불교정전》이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음을 밝힌 바⁹⁾가 그 방증(傍證)이다. 한편 〈사진 6〉은 익산 총부를 자주 방문했던 이리경찰서 가와무라 마사미의 사진으로 불법연구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미리 연락을 해주었다는 기록¹⁰⁾을 통해서도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하겠다.

원불교에서는 총부가 건설된 해인 1924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로 나눈다. 1943년 소태산 대종사는 총부건설 후 20여년동안 제자훈련·교역자양성·초기교서편찬·교단경제건설·교도교화등 원불교 창립과 발전의 터를 닦은 후 법랍 28년 세수52세로 열반에 든다.

1943년 대종사의 열반이후 정산(鼎山) 송규(宋奎)가 제1대 종법사(宗法師)로 취임하여 교통(敎統)을 계승하게 된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게 된 이후 그는 전재동포구호 사업, 고아원 설립, 학원 설립등을 추진하며 민중의 계몽을 위한 교화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사진 7〉 1946년 교명(敎名)을 원불교로 바꾸고 1947년 4월27일을 기해 대외적으로 '원불교'라는 공식 명칭으로 교화, 교육, 자선 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교도수가 증가하여 교세는 더욱 성장하게 되나 1950년 6.25전쟁을 맞게 된다.

한편 1946년 인재양성을 위하여 익산 총부 내에 현재 원광대학교(圓光大學校)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학림(唯一學林)을 설립 한다. 〈사진 8〉 또 동산선원(東山禪院)·중앙선원(中央禪院)·원광여자중



〈사진 5〉 박문사주지 우에노(왼쪽에서 세번째)스님과
《불교정전》을 발간하도록 힘써 준 김태흡 스님(왼쪽 첫
번째), 사진첩 소태산대종사, p. 153.



〈사진 6〉 이리경찰서장 가와무라 마사미(사진
중앙)와 대종사, 사진첩 소태산대종사, p. 152.



〈사진 7〉 1945년 전재동포구호 사업을
진개한 교도봉사원들,
개벽계성 정산종사, p. 65.



〈사진 8〉 1949년 유일학림 제1기 졸업생과 정산 종사,
개벽계성 정산종사, p. 147.

고교를 설립하는 등 후생양성에 힘썼다.

1951년 원광대학교, 원광중학교를 설립한 뒤 전
후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 정산 종법사는 교단의 미

래 준비에만 힘을 쏟으며 황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교단의 의혜보완을 위해 1952년 새 《예전》을 발간
하였다. 동시에 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

한 사업으로 제1대 성업봉찬기념 대회를 시작하고 1953년 시작된 이 기념 대회 때 기존에 사용했던 ‘시창(始創)’이라는 연호를 ‘원기(圓紀)’로 바꾼다. 이후 1955년 방언 공사가 이루어졌던 영산 성지 정관평의 재방언 공사를 시작한다. 1958년 정화사(正化社)를 설립, 대중경 편수위원회를 결성하여 초기 《불교정전》인 《정전》을 수정하고 대중사의 행적을 기록한 《대중경》편수에 착수한다. 《세전》과 《성가》《교사》편찬 추진하여 현재 원불교의 기본 경전이 되고 있는 《원불교 전서》의 바탕을 마련한다.

1962년 겨울, 법랍 44년 세수 63세로 3차의 연임을 통한 장기간의 교역을 마치고 열반에 든다.

정산 종법사의 뒤를 이는 인물은 대산 김대거(金大舉, 1914-1998) 종법사이다. 1962년 종법사로 취임하여 원불교 교화, 교육 자선의 균형발전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세계 종교로의 활동과 해외 교화를 개척하였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한 삼대(三代)운동으로 심전계발, 공동시작 개척, 종교연합(UR) 등을 제창하고 각종 훈련과 종교협력 운동에 앞장서는 등 하나의 세계 건설에 주력하였다.¹¹⁾

원불교는 대산 종사에 이르러 국대 6대 종교로 발돋움하고 세계 종교의 기초를 닦게 된다. 1998년 법랍 69년 세수 74세로 열반한다.

대산 종법사에 이어 원불교의 법통은 좌산 이광정(李廣淨, 1936-)종법사가 계승하였다. 역대 종법사의 경륜을 이어 인재육성, 체제정비, 경제기반확립, 교서번역, 방송국 설립, 국제교화 등 교단 각 분야의 성숙과 세계적 종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재가, 출가가 다 함께 맑고 밝고 훈훈한 삶을 나누고 창조할 수 있는 교화, 교육, 자선, 문화사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총력을 기울였다.¹²⁾

현재 종법사는 경산 장응철(張應哲, 1940-) 종법사로 계승되었다.

Ⅲ. 법락(法洛)의 형성 및 변천

1. 법락(法洛)의 형성과정 및 종교적 상징성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대중사의 대각이후 1919

년까지는 저축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단체로써 모습을 갖추어나기 시작했다. 1924년 불법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정식 창립총회를 열었고 1947년 원불교라는 종교명을 표방한 이후 현재까지 교단의 공식 예복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법락은 교복 위에 착용하는 독립된 부가물로써 초기 교복이 고안될 당시였던 1934년경에는 없었고 1943년 대중사 열반시 흰색의 별포를 띠자로 만들어 교복 또는 남자 법의 위에 두른 이후 1950년경 하피형의 별도의 띠자가 교복위에 사용되었다. 현재 원불교의 공식 예복에 보이는 <사진 9>에서의 법락은 1967년에 결정된 것이며 이후 현재까지 원불교의 공식 예복은 형태와 착용하는 상황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진 9> 동복인 회색, 하복인 흰색 교복, 원불교 홈페이지

원불교가 불교적 색채를 띤 종교단체로서 활동을 시작하던 초기 역사에서 이들의 당시 예복은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 착용한 남자법의였다. <사진 10>은 1933년 겨울 불법연구회 교도들이 경성에 지부를 신축하고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남녀 교도 모두 깃들레에 이색 감을 덧 맨 하오리 형태의 남자 법의를 두루마기나 치마 저고리 위에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 11>은 1932년 대중사의 진영으로 두루마



〈사진 10〉 1933년 11월 돈암동 경성지부 신축기념,
사진첩 소태산대종사, p. 138



〈사진 11〉 1932년 대종사 진영,
사진첩 소태산대종사, p. 35.

기 위에 남자법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사진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자 법의는 성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4년 전반기에 현재 원불교의 교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복이 대종사에 의해 고안된다. 현재는 교복위에 법락을 착용하지만 당시 교복 위에는 아무 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1934년 이래 교복 위에 따로 착용하는 독립된 형태의 법락이 등장하기 전까지 남자 법의와 교복은 교단 내에서 각각 예복처럼 외의의 기능을 하며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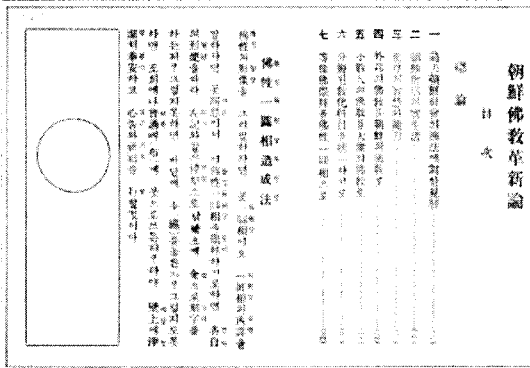
이상의 고찰을 정리하면 원불교 법락의 기원은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남자법의의 이색(異色) 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법락은 형태에서 나타나듯이 5조 가사(五條袈裟)와 비슷한 형태로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불교의 5조 가사는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안타회’로 잠잘 때 입는 옷이며 가사 중에서 제일 아래 조(條)의 옷이며, 절 안에서 여러 가지 일할 때와 길에 다닐 때에 입는 옷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로 장삼 위에 큰 가사를 덧입으니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당나라의 측천무후가 모양을 축소하여 선승(禪僧)들에게 준 이후로 5조 가사가 생겼다고 한다. 따라서 5조는 7조·9조 가사보다 후에 생긴 것이다. 5조 이외의 가사, 즉 7조·9조

이상은 장삼이 아닌 승복 위에도 착용할 수 있으나, 5조는 반드시 장삼을 입고 그 위에 착용하며, 목에 드리우는 끈은 2줄이다. 착장방법은 목에 걸치는 것인데,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긴 띠를 돌려 앞에 맨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 5조가사의 크기를 더욱 작게 만들어 끈의 형태로 목에 거는데, 일본 승려들 사이에 많이 애용되며 화려하게 수를 놓아서 쓰기도 한다.¹³⁾

한국에서 5조 가사는 장삼을 입고는 큰 가사를 걸치지 못하므로 승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하여 착용하였다. 위쪽에 띠를 달아 목에 걸고, 두 어깨를 통하여 가슴 앞에 걸치는 것으로 ‘괘락’ 또는 ‘락자’라고 하는데, 해방 후 일본의 신흥종교, 즉 ‘임제종(臨濟宗)’의 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한다. 원불교의 법락은 조계종의 락자와는 달리 조(條)가 없으며, 갈색 바탕에 금사를 사용하여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등근 원을 수놓았다.¹⁴⁾ 이렇듯 금사로 등근 원을 수놓은 연원은 1935년 대각전 준공식이 있던 시기에 발간된 ‘조선불교혁신론’에 명시된 「불성일원상 조성법」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시작된다 하겠다.

‘(전략)... 金으로 刻字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비단

에 수(繡)를 놓든지? 그렇지도 못하면 조희[중이]에나 보통배(袍)에 붓으로 쓰든지? 하야 壁上에 淨潔히 奉安하고...(후략)¹⁵⁾



〈사진 12〉 1935년대각전준공시 발간된 조선불교혁신론, 사진첩 소태산 대중사, p. 126.

현재의 법락은 갈색으로 〈사진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각형 형태가 가슴의 중앙에 오고 그 중심에는 금사로 수놓은 일원상이 온다. 양쪽으로 끈이 달려서 목에 걸 수 있게 하였는데 마치 흥배를 앞쪽에 매달아 놓은 듯한 형상이다. 이 법락은 법의 전수를 상징하고 대법을 전해 받은 사은(思恩)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중심에 위치한 일원상(一圓象)은 우주 만상의 본원의 자리를 상징하고 색상은 가장 고귀함을 상징하는 황색으로 하였다.



〈사진 13〉 1943년 대중사 성해운구시 남자법의를 교복, 사진첩 소태산대중사, p. 175.

2. 법락의 변천

〈사진 13〉은 1943년 6월6일 소태산 대중사를 발인 식장으로 운구하는 제자들 중, 맨 앞 흰 법락을 두른 사람이 '정산 종사'라는 설명이 있다. 우측 첫 번째 사람인 정산 종사는 흰색 깃을 두른 남자 법의를 입고 있다. 또한 성해를 운구하는 인물은 검정 교복에 좌측 가슴에 흰색 복표¹⁶⁾를 달고 있다. 한편 좌측의 사람은 일본에서 온 우에노 스님으로 역시 남자법의를 착용하고 있으나 길이도 짧고 깃도 백색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1941년 대중사는 그의 제자들에게 법복을 내렸다고 한다.¹⁷⁾ 이때 내린 법복은 〈사진 13〉의 설명처럼 교복이 아닌 남자 법의였던 것으로 이들이 착용한 옷에 대해 '흰색의 법락을 두르다', '법복이다'라는 표현들이 보이는데¹⁸⁾ 이는 '남자법의의 깃' 부분을 '법락'이라는 독립된 구성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진 14〉는 대중사 열반 후 제자들의 행렬로 1943년 당시는 일제 강점기 중 거의 마지막 시기로 식민지 통치에 대한 일본의 감시가 매우 심했다. 당시 소태산 대중사의 장례 행렬엔 수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이에 대한 감시가 삼엄했었다 한다.¹⁹⁾ 장례 행렬엔 230명만 참여할 수 있었고 '남자법의'에 흰색 깃을 착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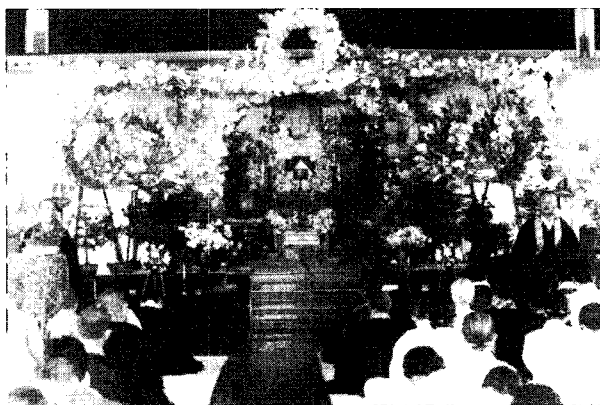
〈사진 54〉는 대중사 열반 후 제1대 종법사로 취임한 정산 종사의 1943년 당시의 진영이다. 이는 1934년의 대중사 진영차림과 같은 모습으로 일본의 영향



〈사진 14〉 1943년 법복을 입은 제자들의 장의 행렬, 사진첩 소태산대중사, p. 171.



〈사진 15〉 종법사취임, 1943년,
개벽 계성 정산증서, p. 59.



〈사진 16〉 1946년 주산 송도성 종재식,
개벽 계성 정산증서, p. 164.

관계가 반영된 사진이다. 〈사진 16〉은 1945년 광복 이후 원불교 예식 중의 하나로 치르고 있는 정산 종사의 친제(親弟)인 송도성의 종재식 사진이다. 여기서도 정산 종사는 두루마기 위에 일본식 남자법의를 착용하고 법문을 설하고 있다.

이 후 1947년 원불교로 교단의 명칭을 바꾸고 정식으로 교명을 선포한 1949년의 시기를 거치며 기존

의 예복이던 남자법의가 아닌 새로운 양식의 예복이 등장한다. 〈사진 17〉은 1950년 이공주²⁰⁾의 장남인 박창기²¹⁾의 종재식에 새로운 양식의 예복을 입고 있는 정산 종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교복위에 독립된 형태로 제작된 법락을 두르고 있으며 양쪽 가슴으로 늘어진 띠 위에는 원형의 장식이 보인다. 이와 비교



〈사진 17〉 1950년 11월 박창기 종재식,
개벽 계성 정산증서, p. 169.



〈사진 18〉 1954년 남녀교무복, 개벽 계성 정산증서, p. 183.



〈사진 19〉 1957 법혼장 수여식, 개벽 계성 정산증서, p. 174.

하여 좌측의 인물은 기존의 남자 법의를 착용한 듯 보인다.

남자 법의나 교복은 남자 교도의 경우 두루마기 위에, 여자 교도의 경우 치마, 저고리에 착용한 것으로 두 가지가 각각 따로 착용되었었다. 그러나 1945년 광복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를 벗어나게 된 원불교는 교명을 바꾸고 제복인 교복도 역시 새로운 체계를 모색한 것 같다. 즉 교복 위에 남자법의의 것과 같은 띠를 별도로 제작하여 두르게 된 것이 후에 법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원불교의 법락은 기존의 남자법의에서 보이는 이색감으로 된 하피형 머플러 식으로 이들은 1943년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에서 착용된 흰색 깃처럼 상징적 부가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사진 18〉은 1954년경의 사진으로 장수교당에서 정양중인 정산 종법사를 문병 온 남녀 교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중앙의 정산 종사는 흰색 교복에 법락을 두르고 있으며 좌측의 남자 교무들은 흰색 교복만을 입고 있다. 여자 교무들은 현재의 여름 정복(正服)처럼 흰색 저고리에 통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즉 이 당시는 교복은 이미 계절성을 띠는 색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락자(洛子)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구성물인 법락을 교복위에 따로 착용하게 되었다.

〈사진 19〉는 1957년 법혼장 수여식에서 전주교당 교도들과 기념 촬영을 한 사진으로 중앙의 정산 종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이 법락을 두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산 종사의 법락은 1950년도 당시에 보였던 형태로 남자 법의의 깃처럼 길지 않은 별도의 띠 좌우 상단부에 원형의 무늬와 하단부에 국화 무늬가 있는 것으로 다른 교역자들의 법락과는 다르다.

현재 착용되고 있는 법락의 형태가 보인 시기는 1950년 말 경으로 〈사진 20〉에서 볼 수 있다. 정산 종사가 제 1대 종법사로 취임한 1943년 이래 16년 후 인 1959년 종법사 3연임을 기념하는 사진에서 중앙의 정산 종사가 현재의 법락을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좌우에 앉은 간부들의 법락은 변화가 없다. 이후 1961년 정산 종법사의 회갑을 기념하는 사진을 보면 다양한 법락들이 보인다.

〈사진 21〉의 좌측 첫 번째 남자 교역자가 교복위에 두르고 있는 법락은 초기 남자 법의의 깃과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다. 중앙의 정산 종사는 종법사 3연임 취임식에서 착용한 사각 흉배와 같은 형태의 법락을 착용하고 있고 그 옆에 앉은 부인 여청은 여사의 법락 그 형태는 다르다. 맨 우측의 대산 김대거가 두르고 있는 법락은 1950년도에 정산 종사가 착용한 법락과 같다.

〈사진 22〉는 〈사진 21〉에서처럼 정산종사의 회갑 경축식에서 성직자들이 착용한 법락들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동일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회갑을 맞은 중앙의 정산 종법사와 그의 좌측 두 번째 인물인 대산 김대거를 제외하면 정산 종법사 좌측 첫 번째 인물인 이완철은 〈사진 21〉과 비교했을 때 다른 형태의 법락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 22〉의 2열 우측 맨



〈사진 20〉 1959 증법사3연임,
개벽 계성 정산중사, p. 86.



〈사진 21〉 1961 정산중사회갑기념,
개벽 계성 정산중사, p. 190.



〈사진 22〉 1961년 개교46년 및 정산중법사 회갑 경축식,
개벽 계성 정산중사, p. 186.

끝의 여청운은 법락을 두르지 않고 있으며 증법사의 우측 첫 번째 인물인 이공주는 이완철과 동일한 형태의 법락을 두르고 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행사를 기념하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법락의 착용에 있어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해석은 교복 위에 독립된 법락의 착용은 법제화 되었으나 그 형태나 양식이 1961년 까지도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3〉은 1968년 대중사 성탑 앞에서 여자 교역자와 일반 교도들이 간부 교역자인 이공주와 김영신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한 사진이다. 1960년대 말경이 되면 1960년대 초와는 달리 비교적 정돈된 양상

으로 법락을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이는 현재 원불교 교역자의 법락과 교복에 관한 논의의 시작이 1967년 3월24일 제 15회 정기수위단회에서 '법의 절차 양식의 건'을 상정하여 결정되었다는 전술한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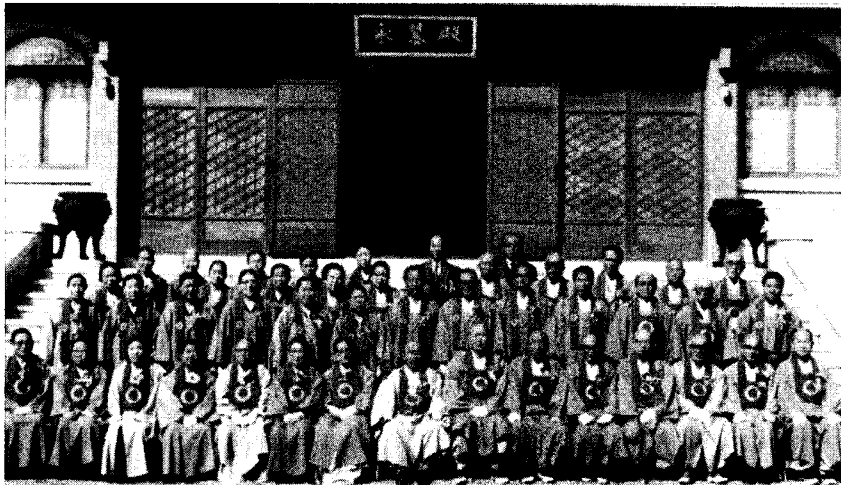
1974년 〈사진 24〉에 중앙의 대산 증법사는 1961년 정산 증법사의 법락처럼 증양에 한 개의 일원상을 가진 흉배 형식의 법락도 착용하고 있다. 좌우의 인물들은 작은 일원상이 어찌 양쪽으로 각각 한 개씩 위치한 하피형의 법락을 하고 있다. 증법사만이 착용한 듯 보였던 현재의 법락은 1977년에 착용 대상이 수위단원들로 확대된다. 〈사진 25〉는 이후 1980년대



〈사진 23〉 1968년 3월 26일 성탑에서, 보배로운 생애 구타원대종사 1.2,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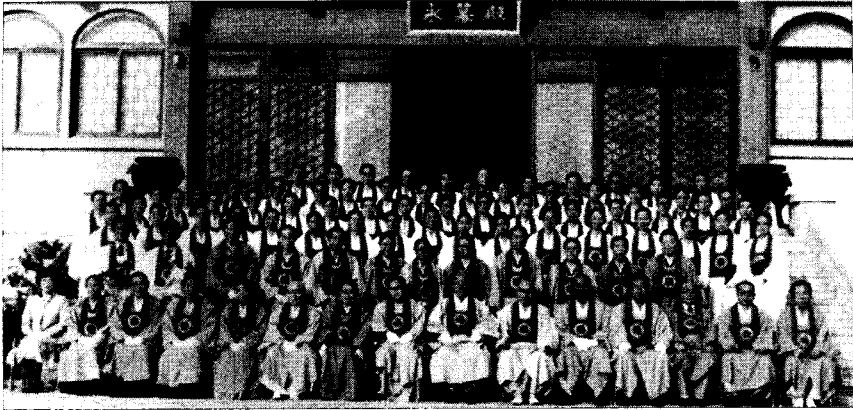
〈사진 24〉 1974년 정화단 선서식을 마치고, 보배로운 생애 구타원대종사 1.2, p. 29.



〈사진 25〉 1977년 종법사 추대 및 수위단 선서식 기념, 보배로운 생애 구타원대종사 1.2, p. 34.

초반에 〈사진 26〉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성직자들이 현재의 법락을 착용하게 된다.

이상을 고찰한 결과 원불교가 대례복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복위에 법락을 착용하는 방식은 1940년대



〈사진 26〉 1983년 11월 정남,정녀 선서식을 마치고,
보배로운 생애 구타원대종사 1.2, p. 38.



〈사진 27〉 1991년 교복 하복 위에 법락을 착용한 남녀 성직자,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말 즉 '불법연구회'에서 '원불교'라는 정식 교명을 선포한 1947-1949년경으로 보여 진다. 〈사진 17〉의 1950년 박창기 종재식에서 정산 종사는 교복위에 일원상과 국화문양이 있는 법락을 두르고 있다.

1959년 정산 종사는 〈사진 19〉에서처럼 종법사 3연입식에 취임하면서 현재와 같은 사각 흥배형태의 법락을 처음 사용하고 있다. 이후 1960년대 후반 교복과 법락에 관해 1967년 정식으로 논의된 때의 법락 형태는 종법사의 법락은 물론 다른 성직자들에게도 일원상만을 문양으로 채택한 양식으로 정리된다.

1977년 대신 종법사가 1962년 제2대 종법사로 취임한 이래 3연입으로 추대된 시기의 자료인 〈사진 25〉를 보면 현재와 같은 사각 흥배형의 법락은 종법사를 포함한 수위단으로 확대되어 착용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모든 성직자가 대례복으로써 교복위에 사각 흥배형의 법락을 착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초반 〈사진 26〉에서 볼 수 있다. 이후 현재까지 원불교의 공식 법락은 대례복의 용도로 〈사진 27〉에서처럼 남녀 성직자는 물론 교도들에게도 교복과 함께 착용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16년에 자생한 신흥종교 원불교 법락(法洛)의 형성과 그 변천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법락(法洛)은 교복위에 착용하기 위해 목을 둘러 가슴 앞에 드리워지도록 독립적으로 고안된 부가물(附加物)이다. 이들 법락(法洛)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법락은 초기 납자 법의의 이색선과 같은 구조물을 독립적으로 떼어낸 듯 목에 두른 것을 락자라 할 때, 1950년경이 되면 기존의 직급단으로 된 락자와 일원상과 국화문양이 들어간 락자가 공존하게 된다. 일원상이 들어간 락자는 당시 종법사에게 허용되던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양식의 복식이 나올 때마다 교단의 지도자가 늘 먼저 착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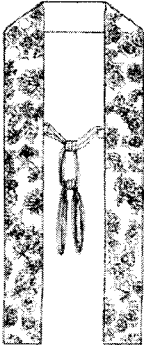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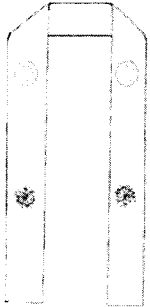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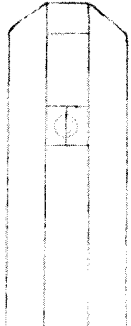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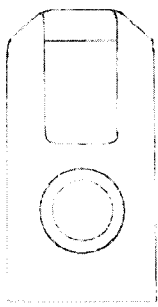
일원상과 국화문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락자는 1960년대 후반기에 사라지는 듯 하며 일원상만이 표시된 간소화된 짧은 락자가 보이게 된다. 일원상 법신불을 교리의 상징으로 삼는 현재의 원불교식 법락은 법의 전수를 상징하고 대법을 전해 받은 사은(思

恩)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중심에 위치한 일원상(一圓象)은 우주 만상의 본원의 자리를 상징하고 색상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황색으로 하였다.






현재 원불교의 공식 예복으로 정해진 교복과 법락에 대한 안건은 1967년 결정된 것으로 이때 법락은 사각홍배식의 독립된 부가물의 중심에 일원상이 수 놓여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법락은 1959년경 등장하여 종법사만이 사용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기를 넘어서야 수위단원이 이러한 법락을 착용하였다. 모든 교역자가 이러한 법락을 예복으로 착용한 시기는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교단 형성시의 의례 복식에 관한 문헌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기록 사진이 담겨진 앨범 자료를 많이 의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은 해당 시기의 교사를 근거로 한 연구자의 추론에 의지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창교 90주년을 넘는 한국형 신흥종교 원불교의 공식적인 예복의 상징물인 법락 형성과 변천에 관한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원불교 복식을 다루는 후속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표 1> 법락의 변천과 그 시점

구분	법락의 변천				
시대	(납자법의) 1930년~1940년중 1940년말~1960년중	1940년말 ~1960년중	1945년 등장	1960년중 ~1980년초	1959년 등장 ~현재
사건	1943년 대종사 열반시 흰색 자락을 두른 후 따로 독립된 듯	1950년 박창기 중재식에서 정산 종사 착용(교복과 법락)	1961년 정산종사 회갑 기념 전후	1968년 3월26일 성탑 방문기념	1959년 정산종사 3 연입식
형태					

<표 2> 교복과 법복에 대한 정리

시 대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사건 옷의 종류	1916년 대각 후 참교	1924년 불법연구 회창립	1935년 대각전 준공	1949년 '원불교'로 공식등록	1953년 연호를 '시장'에서 '원기'로	1967년 '법의 결자 양식의 건설'상정	1974년정 화단 선서식	1983년 정남, 정녀 선서식
(전·전중·중후·후기)								
두루마기								
남자법의								
교복								
락자 1 (초기 법락)								
								
락자 2 (과도기 법락)								
								
락자 3 (과도기 법락)								
								
락자 3 (정작기 법락)								
								
법락 (현재 법락)								
								

참고문헌

- 1) 신영선 (1998). *服飾의 정신문화*. 서울: 敎文社. pp. 110-111.
- 2) 金炫京 (2001). *韓國 開倉 新興宗教 儀禮服飾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pp. 1-2.
- 3) 여기서 종교복식이란 성직자들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제복화 된 복식을 의미한다. 제복(制服)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하게 제정된 의복'으로 사복(私服) 또는 평복(平服)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원불교 복식에서 평상복으로 착용되는 정복은 교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착용하고 있는 만큼 제복과 반대되는 의미의 평복 개념과는 다른 차원임을 밝힌다.
- 4) 네이버 백과사전, '천도교' 참조.
- 5) 네이버 백과사전, 원불교 <http://100.naver.com/100.php?id=120275>
- 6)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사진첩: 少太山大宗師*. 익산: 원광사(비매품), p. 123.
- 7) 김영두 (1997). 「예전」형성기의 사회적 배경과 특징. *원불교학 2*. 한국원불교학회/원불교 홈페이지 출력본 p. 21.
- 8) 일제 강점기에는 국내에 일본 불교가 유입되었는데 특히 대처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임제종(?), 태고종은 대처 제도를 인정한다. 광복이후 전무제도가 생기기 전 불법연구회의 회원들 역시 결혼을 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 9) 정산종사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 (2001). *開闢繼聖 鼎山宗師*. 익산: 원광사(비매품), p. 142.
- 10)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앞의 책*, p. 152.
- 11) 네이버 백과사전, 이대거 참조.
- 12) 네이버 백과사전, 이광정 참조.
- 13) 愼蘭淑 (1978). *우리나라 가사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1-33.
- 14) 任相任 (1997). *韓國 新宗教 儀禮服飾의 特性에 關한 研究 - 水雲教, 彌勒佛敎, 大倧教, 圓佛敎를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5(1), p. 46.
- 15)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앞의 책*, p. 126.
- 16) 상중(喪中)임을 표시하기 위해 복식에 다는 표식.
- 17)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앞의 책*, p. 187.
- 18) 박종빈 대종사가 생전에 '법복'이라 하여 내린 옷을 착용하고 장례 행렬에 임한 제자들, 즉 교도들의 모습이 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들이 착용한 의복은 현재 '법복'이라고 하는 둥근깃의 긴 포로 된 교복형태의 옷이 아니라 직선으로 된 배자형 깃을 가진 일본식 납자법의이다.
- 19)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앞의 책*, p. 166.
- 20) 구타원 종사(九陀圓 宗師), 이공주(李共珠, 1896-1991), 소태산 대종사, 정산 종사, 대산 종사를 보좌한 분으로 원불교 창립기에 있어 문화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고 교사에서도 어머니적 역할을 한 중추적 인물로 기록되는 여성이다.
- 21) 목산 박창기(1917-1950), 이공주의 장남. 7세에 익산으로 모친을 따라 내려와 27세에 출가서원하여, 동국대학 문학부 불교학과 졸업 후 대학원에서 불교를 연구하던 중 6.25사변시 불의의 열반 당한다.